

윤대통령 석방에 대한 감사의 기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께서 기이한 일을 계획하셨음이라.
(이사야 25: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 조국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간절히 함께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과연 주님께서 주님되심을 증거하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열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영적수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시고 기도를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이번 일로 기독교계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서는 정치와 사법부, 국회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영적으로 썩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주님의 진리가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계속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험준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더욱 강하게 싸워나가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젊은 세대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일으켜주신것입니다.
한국을 이끌어갈 다음세대들 가슴에 애국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며,
그들 세대 가운데에 구원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중에 있던 윤 대통령을 찾아가 주셔서
김진홍목사님 넣어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나라안에 반기독교인 공산화의 위험이 높아진것,
안일주의에 빠져있고 선교사를 더 못보내고 있는 교회들,
새벽기도가 죽어가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는 목사들,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선교사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했으며 정치에 무관심하여 반기독교의 뿌리가
깊어진것을 막지 못한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이 땅이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앞으로의 모든 길들도 계속하여 주님께 맡깁니다.

탄핵의 위협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악한 궤계가 허물어 지게 하시고
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윤대통령이 속히 복귀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로 맡겨주신 지도자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악과 타협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려
다시 한국이 주님께 돌아와 새롭게 되는
거룩한 기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안에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뵈으신 기도의 용사들이 이 싸움에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오늘도 대통령의 석방의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의 무렵으로
나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한번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국가와 민족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